

91. 9. 24

집대비 변칙회계 무더기 '발목'

48개사 33억 추정 가족 해외여행도 회사에 씌워

기업들이 손비인정 한도보다 더 많이 지출한 집대비나 광고비 등 이른바 소비성 경비를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변칙회계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저질러 오다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

터 올해 8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2억원 규모의 소비성 경비를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3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거래처에 술이나 음식을 대접하면서 집대

비 비용을 0기업은 복리후생비(1억7천8백만원), B기업은 광고선전비(1억9백만원)로 항목을 바꿔 변칙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도보다 더 쓴 집대비 3억 6천9백만원을 판매촉진비로 돌린 사례도 드러났으며 또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주와 그 가족이 쓴 해외여행비나 음식값 등을 상습적으로 회사경비로 회계처리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집대비 등의 지출을 둘러싸고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많은 기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소비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성실도를 평가할 때 소비성 경비 지

출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업주의 호화사치 생활비용을 기업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로 필요경비의 범위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집대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집대비 등의 부분별한 지출이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호화롭살롱 등 비생산적 유흥산업을 번창케 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세원으로 잡힌 국내기업들의 집대비만도 무려 1조1천3백68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